

고종석 한달전 피해자 집 답사했다

허술한 문단속·가정환경 살피... 경찰 “범행 사전 계획한 듯”

나주 7세 여아 성폭행범인 고종석(23)이 범행 한 달 전에 A(7)양의 부모가 1년 전 이사한 곳까지 찾아가 집 안 내부 구조 등을 살핀 뒤 계획적으로 A양을 납치·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경찰이 고종석을 5일 검찰에 송치하기 전 보강수사를 위해 A양의 어머니인 B(36)씨를 면담한 결과 최종 확인됐다.

고종석이 술을 마신 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사전에 A양의 가정환경, 주택 구조 등을 살피고 B씨가 PC방에 있는 시간대를 골라 범죄를 저질렀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관련기사 6면〉
3일 나주경찰은 “고종석은 5년 전 나주에서 알게 된 A양의 부모가 운영하던 분식집을 한 달 전에 찾아가 인근 주민에게 A양 부모의 새 거처를 알아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종석은 지난 7월 30일께 나주의 작은아버지 집에 들른 뒤 1년 전 영업이 부진해 문을 닫은 A양 부모의 분식집을 찾았다. 이 과정에서 A양의 가족이 바로 인근 식당으로 거처를 옮긴 사실을 알아낸 그는 A양 부모를 찾아 인사를 나누는 등 친근하게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고종석은 인터넷 게임에 심취해 있던 B씨를 이후 가끔 PC방에서 마주쳤으며, 범행 당일인 지난달 30일 새벽 1시께에도 만난 B씨에게 “아이들은 잘 있냐”며 안부를 묻은 뒤 곧바로 범행에 돌입했다. 고종석이 사전에 A양의 아버지는 안방에서, 어머니와 A양을 포함한 자녀 4명이 거실에 서 각기 따로 잔다는 사실과 PC방에 있는 B씨를 위해 출입문 단속이 허술하다는 것조차 파악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종석이 A양 가족의 이사한 곳까지 알아볼 정도의

관계는 아니었다”며 “이는 아동음란물을 즐겨보며 자신도 어린 여자와 성행위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고종석이 의도적으로 갔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5년 전 나주에 직장 자리를 얻어 잠시 일한 뒤 나주와 순천을 왕래했던 고종석이 특정시기에 A양 부모를 찾아나선 것도 범행을 미리 염두에 뒀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경찰은 또 고종석의 유전자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부본소에 맡겨 또 다른 강력범죄를 저질렀는 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중부취재본부=정철현기자 chungj@



‘릴레이 태풍’으로 막대한 재산피해가 난 광주·전남지역 일부 지자체가 특별재난지역 우선 지정에서 빠져 반발하고 있다. 3일 31사단 장병과 예비군들이 강풍으로 쑥대밭이 된 남구 화정동 비닐하우스에서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 남구·나주 등 태풍피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특별재난지역 제외 반발

해남·장흥·강진·영광·신안 5곳은 선포

태풍 ‘볼라벤’과 ‘덴빈’이 잇따라 강타한 광주·전남지역의 피해액이 눈덩이처럼 불고 있지만 광주시 남구와 나주시 등 일부 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지연돼 해당 지자체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관련기사 2·10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피해 복구 과정에서 지자체의 부담이 커지고 복구도 늦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3일 광주시·전남도에 따르면 태풍 볼라벤과 덴빈으로 이날 현재까지 전남 2210억원과 광주 443억원 등 모두 2653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피해가 컸던 해남·장흥·강진·영광·신안군 등 5개 지역을 3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고흥·영암·완도·진도군 등 4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하기 위해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

남은 4개 지역의 지정 여부는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배와 감, 복숭아 등 과수 낙과와 벼 쓰러짐 등으로 농작물 피해액만 800억원으로 추산되는 나주와

141억원의 피해가 난 광주시 남구 등은 우선 선포 대상 지역에서 빠졌다. 또 순천시(96억원), 담양(84억원)·무안(65억원)·보성(68억원)·화순(85억원)군 등 피해액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치를 넘긴 일선 시·군도 제외됐다.

이는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요구하는 지자체들이 많아 정부가 선포 기준치의 2.5배 이상의 피해가 집계된 지역을 우선 선포 대상으로 정했기 때문이다.

해당 시군의 지자체장과 국회의원들이 경쟁적으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요구하고 있어 정부가 우선 선포 대상의 기준치를 높인 것이다.

정부는 또 부풀려 신고하는 경우도 있다고 판단해 현재 현장조사 중이며, 오는 7~14일 정부합동조사단을 피해 지역에 파견할 계획이다.

이처럼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늦어짐에 따라 해당 지역민과 정치권 등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통합당 장병완(광주 남구) 의원은 최근 광주시 남구 등 비닐하우스 피해 농가에 대한 정부 차원의 현

실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나주시의회는 잇단 태풍으로 초토화된 나주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했다.

농민단체들도 3일 광주시장 앞에서 ‘태풍피해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특별재난지역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지역의 조속한 특별재난구역 지정을 요구했다.

특별재난지역 우선 지정에서 제외된 지자체들의 재정 부담도 우려된다. 재난지역은 피해액에 따라 일반과 특별로 나눠 지정되는데 일반재난지역은 국고 지원 50%, 지자체 부담 50%이며 특별재난지역은 지방비 부담분의 50~80%를 국가가 추가 지원하게 된다.

/오광목기자 kroh@

광신대학교 신입생모집
2013년도 학부 수시 1차
원서접수
8월 20일 ~9월 11일
입학문의 062)605-1114
광신대학교

우암학원 창학62주년
광주의 새로운 명문 대학교
남부대학교
(062) 970-0114
꿈을 이루는 특성화 대학교
전남과학대학교
(061) 360-5050

통일교 창시자 문선명 총재 별세

통일교 창시자인 문선명 총재가 3일 오전 1시54분 통일교 성지인 경기도 가평에서 별세했다. 향년 92세.

〈관련기사 18면〉

문 총재는 지난달 14일 감기와 폐

렴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다 현대의학으로 병세 호전이 불가능하다는 진단에 따라 31일 가평 침상국제병원으로 옮겨졌다.

고인은 1920년 1월6일 평안북도 정주에서 태어났으며 일본 와세다대 전기학과를 졸업하고 1954년 통일교를 창시했다. 통일교는 불과 50여년 만에 전세계 194개국 300여만명의 신도를 거느린 종교 단체로 성장했다. 본소는 청심경화월드센터에 마련되며 장례는 13일장으로 치러진다. /연합뉴스

광복 67주년 백범 김구 선생 서거 63주년 기념

조국광복, 자주독립, 남북통일, 애국 애족 정신의 결정판
아직도 못 다이룬 임의 소원

2012. 9. 5 /수/ 오후 3시 광주빛고을시민문화관
2012. 9. 13/목/ 오후 6시 서울대학교 문화관 대극장

| 예술총감독 | 송순섭 | 공연단체 | 전라남도국립국악단
| 연출 | 강미진 | 상임지휘자 | 박승희

주최 | (사)동편제판소리보존회, (사)남도문화에술진흥회
주관 | (사)동편제판소리보존회, (재)전남문화에술재단
후원 | 국가보훈처, 전라남도, 광주지방보훈청
협찬 | (재)서암문화재단, (재)유당문화재단
특별후원 | 광주일보사
문의 | 062)525-6665

창무극 백범김구
金九

무료입장